

교육실습을 마치며..

컴퓨터교육과

4월 24일 금요일 중간고사 마지막 시험감독 참관이 끝나면서 길고 길었던 4주간의 교육실습이 끝났다. 한 달 동안 같이 지낼 교생선생님들을 처음 만나 어색한 인사를 나누던 게 엿그제 같았는데 헤어질 시간이 되니 다들 너무 아쉬워하며 추억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기 위해 같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우리 반 아이들과 마지막 종례를 하면서 이 친구들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떠나서 너무 아쉬웠다.

첫날 교생실습을 나가서 담당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한 달동안 함께 지낼 교생선생님들을 만났다. 내가 나갔던 상계고등학교는 이번에 8분의 교생선생님을 받았는데 국어 2명, 수학 1명, 영어 1명, 윤리 1명, 화학 1명, 체육 1명, 정보 1명이었다. 처음 만나 다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이제 한 달 간 나에게 학교의 교육과정을 알려줄 선생님을 만났다. 나는 특이하게 담임지도 선생님과 과목지도 선생님이 다른 분으로 배정이 되었다.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 정보과목인데 정보과목 선생님께서 학급 담임을 맡지 않으셔서 담임지도는 다른 선생님께서 해 주시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아쉽게도 나는 담임을 맡은 학생들을 한 번도 가르칠 기회가 없었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체육 시간에 축구를 같이 하면서 얼굴을 익히는 것 외에는 딱히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도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실습을 나온 동료 교생선생님들과 담임지도 선생님께 조언을 얻었다. 그 결과 집단상담, 수업참관과 같이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조언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내가 반 학생들과 친해지고 마지막 날에 단체사진까지 찍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담임지도 선생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시간이었다. 담임지도 선생님께서도 내가 학교에 있는 하루 중에서 반 학생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아침조회 10분과 오후종례 10분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셨다. 그래서 나와 같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생각하던 도중, 학교에서 금요일 오후에 담임선생님이 반에서 금연교육을 두 시간 진행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 담임선생님께서 이 두 시간짜리 금연교육을 한 시간만에 끝내버리고 나머지 한 시간을 내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가르쳐 볼 것을 권유하셨다. 담임선생님께서 이러한 제안을 하셨을 때 나는 정말 해 보고 싶은 수업이었기 때문에 쉽게 승낙을 했지만 막상 승낙을 하고 교무실을 나오면서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지 생각도 하지 못했고 어떻게 수업을 구성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도 않는데 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준비시간 동안에 아이들과 내가 원하는 좋은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이 참 많이 되었다. 만약 내가 준비를 부족하게 해서 실망스러운 수업을 하게 된다면 내 실망감은 물론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과 나를 믿고 한 시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떼어 주신 선생님께도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족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로 결심하였다.

교무실을 나와 교생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교생실습실에서 교생선생님들을 만나 어떤 내용을 주제로 수업을 할지 의견을 구했다. 캠퍼스 라이프, 공부 잘하는 방법, 여자들에게 인기를 얻는 방법(남고였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내 마음에 쏙 드는 주제는 없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교생선생님이 '내가 만약 고등학생이 된다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나도 학창시절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 때 이런 것들을 해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몇 가지 떠올랐다. 우리 반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이다 보니 주제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으로 정하고 주제에 맞는 내용들 을 생각하고 그에 맞는 발표 자료들을 만들었다. 발표 준비를 마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반찬이 정말 맛있게 나오는 점심시간도 반납하면서 최대한 좋은 발표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수업은 대(?)성공적이었다. 물론 완벽한 수업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건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걸' 혹은 '이건 꼭 말해주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했네' 하는 아쉬움은 많이 남았다. 게다가 수업을 들었던 학생 들 중에서는 차라리 금연교육을 듣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교생실습을 나가서 진행했던 15시간 가량의 수업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인 수업이었으며, 학생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한 시간동안 가지고 있는 열정을 쏟아부었으며,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가장 열광적으로 반응해준 수업이 이번 수업이었던 것 같다. 더 나아가 한 달 동안의 교생실습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이번 수업을 말했을 것이다.

원래 나는 교직에 크게 뜻이 없었기 때문에 교생실습을 나가기 전에는 너무 힘들었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나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게다가 한 달 켜이나 수업을 빠져야 하기 때문에 수업 진도도 뒤쳐질 것이 뻔했고 특히 경영학과의 아이캠퍼스 강의는 교생실습 기간 중에 시험을 보아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부도 별도로 해야 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지각을 몇 번이나 할지 매우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교생실습은 너무 재미있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와 정말 잘 맞는 것 같았다. 교사의 길을 포기했던 이유가 교육봉사동아리에서 수업을 해 보면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하루하루 늘어나면서 조금씩 아이들과의 추억이 쌓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고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다. 내가 나이가 조금만 더 어리고 아직 나아갈 길을 확정지지 않았다면 진지하게 교사의 길을 생각해 보았을 것 같을 정도였다.

또한 같이 한 달 동안 지냈던 교생선생님들과 담당 선생님들께서 너무 좋은 분들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에는 어색해서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이전에 교생실습을 나갔던 친구들이 그 때 함께 지냈던 교생선생님들과 1년 이상 지난 지금도 연락한다는 말을 듣고 나도 저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교생실습 마지막 날이 되면서 친구들의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07학번이라 학교에서 정말 나이가 많은 고학번에 속했기 때문에 교생실습을 나가서 나보다 어린 친구들 속에서 어떻게 친해져야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같이 교생나간 선생님들 중에서는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이 3분이나 계셨고, 그 선생님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동갑이었다. 그래서인지 과거의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고 보다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또, 어린 선생님들도 불임성이 매우 좋아서 먼저 다가와 주면서 더 많이 친해지게 되었다. 그 덕분에 교생실습이 끝난 지금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으며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나를 한 달 동안 정성껏 지도해준 두 분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특히 담임선생님과는 첫날과 마지막날을 함께했는데,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이나 좋은 교사가 되는 길 등 앞으로 내 삶에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다. 또,

교생실습 기간 동안 매주 꾸준히 친목 활동을 가지면서 사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인생 선배로써 많은 조언들도 들을 수 있었다.

교생실습 한 달은 이번 학기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의 학교 생활을 통틀어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 내가 교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날의 기억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크나큰 추억을 남게 해 준 상계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같이 함께 지낸 교생선생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린다.